

## 강진 군동면 기관·단체, 지역복지 위한 기부 이어져

지정 모금처 ‘나눔 곳간’ 2019년 전용 계좌 개설해 2년간 2천6백만원 모금

“사각지대 발굴·누락·중복 방지 등 복지 체감도 높이기 위해 노력 할 것”

지난달 11일 군동면기관·단체협의회(대표 이용현 면장)가, 24일에는 주민자치위원회(대표 윤재준)가 군동면 지정 모금처 ‘나눔 곳간’에 각각 1백만 원을 기탁했다.

군동면 기관·단체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의 복지 및 발전을 위한 책임있는 행보에 동참하고자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탁을 추진했다.

군동면 지정 모금처인 ‘나눔 곳간’은 2019년에 전용 계좌를 개설해 2년

간 2천6백만 원이 모금됐으며, 2020년 상반기에 1천7백만 원으로 목표액의 65%가 모금되는 등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군동면지사협은 ‘나눔 곳간’ 후원금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 음식 나눔 사업, 거동불편 대상이·미용사업, 홀몸 어르신 건강한 밥상 나눔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소규모 주거환경사업으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의 방충망 수리, 도배·장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동면지사협 윤호경 민간공동위원장은 “지역 기관과 단체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고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다.

공동위원장 이용현 군동면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대상자 누락·중복을 방지하는 등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장성군,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 확대

일반 재산 기준·지원 횟수 완화... 7월 말 신청분에 한시적 적용

장성군이 코로나19 관련 긴급 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이달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적용된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군은 먼저 일반 재산 기준을 종전 1억100만원에서 1억3600만원까지 높여 지원 가구 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긴급복지지원 횟수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2년 이내 동일 사유로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재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지원 종료 후 3

개월이 지난 경우에 한한다.

이번 긴급지원 기준 완화로 장성군은 약 60명(30가구)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해 민생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생계, 의료, 주거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올해 상반기 동안 104건, 총 7154만원 규모를 긴급복지로 지원했다.

장성=박종영 기자

## 문체부, ‘휠체어로 갈 수 있는’ 열린관광지 20곳 공모

지자체 대상 27일부터 8월12일까지 신청 접수

“2022년까지 열린관광지 총 100개소 조성”



2017년도에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전북 완주군의 삼례문화예술촌 책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2021년 열린관광지’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이동 취약 계층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정보 제공 강화 등으로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 기획했다.

문체부는 이 사업으로 2022년까지

열린관광지 총 10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2019년까지 49개소를 조성했으며, 2020년에는 열린관광지 23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현재 상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선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8월12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열린관광지 2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예년과 다르게 정성 평가(현장 평가)의 문항을 세분화하고, 평가 배점 비율을 높였다. 전문가들이 관광지별로 이용시설, 편의시설, 주

요동선, 경사로 등을 직접 점검하고 관광지 본연의 매력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되면 ‘예비 열린관광지’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고, △맞춤형 상담(컨설팅) △주요 관광시설·편의시설, 경사로, 보행로 등 시설 개·보수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나눔여행 등 온·오프라인 홍보 △관광지 종사자·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본격적인 조성 사업 완료 후에는 열린관광지로 거듭나게 된다.

상세한 공모 내용과 신청 양식은 문체부 누리집 ‘알림’ 게시판과 관광공사 누리집 ‘열린관광지 정보교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설명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13일 오후 2시, 강원도 원주 인터볼고 호텔 1층 장미홀에서 열리며,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내년부터는 추가로 무장애 관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미 조성된 열린관광지도 계속 점검해 고장 나거나 파손된 시설들을 추가로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